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종풍쇄신 열쇠는 수행과 포교”

“수행승가 진작과 대 중공의 회복이 종단의 미래 좌표입니다. 이를 위해 4대 의제를 설정하고 향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사진)은 11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수행 승가를 토대로 한 종풍진작’ ‘대중원용살림의 회복’ ‘포교와 복지 진흥’ ‘대사회를 향한 승가의 역할 증대’를 중점 중흥을 위한 4대 의제라고 밝히고 상세한 세부 지침을 피력했다.

“수행승가가 바로 서야 불교가 바로 설수 있다”고 강조한 지관 스님은 수행대중이 평생 의지할 소의삼장(경율론)의 집결과 유통, 계정해 삼학수행을 위한 대중 평생교육체제의 설치와 운영, 종장회의의 설치와 상향 및 선진(禪)산림 상설 운영을 기초로 종풍을 진작시켜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화, 익명화 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대중원용살림의 전통을 살려야 한다며 대중공의제도인 포살과 자자의 정례화, 대중공사제도 회복과 사회화, 수

좌위주의 인거의식을 대중원용안거제로서 회복, 기본수행기간 대중소수 의무화 및 원용살림 전통 확립, 말사대중을 포함하는 교구 중심 결계(結界) 시행, 청규 및 대중운력으로 대중일용사 회복, 사

대하기 위해서는 대중승가의 공의제도와 원용살림 회복 및 사회화, 정견창출협의체로서의 대사회포럼을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지관 스님은 또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조계종 중앙



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올해 계획된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감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활성화, 한국불교 세계화 및 국제포교 역량강화, 저출산 고령화대비 불교사회복지 강화, 간화선 대중화 및 수행환경 조성, 교구중무행정사업 확립, 승가복지제도 구축, 수행승가와 원용살림 회복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중앙승가대 학인들이 강남 봉은사를 재정 지원 사찰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계종 총무원, 중앙승가대 학인 및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의를 모아 이 문제를 조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사찰 재정 투명화와 관련 “여러 사람이 함께 사찰 재정을 운영하는 원용살림을 산다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두식 기자 doobki@buddhapia.com

조계종 중흥위한 4대 의제

- 수행승가를 토대로 한 종풍진작
- 대중원용살림의 회복
- 포교와 복지 진흥
- 사회를 향한 승가 역할 증대

좌거점지역인 농촌지역 지도공공체로서의 역할 개발 등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했다.

포교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출세가대중의 평생 정법도량 삼수와 해외전법에 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대안을 마련하고 대사회를 향한 승가의 역할을 증

중무기관 사업방향은 계획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기초로 운영되며 어린이 포교 활성화, 국립공원일자리 폐지 대안 개발, 중무행정 지방이양, 중앙중무기관 중무혁신 방안 마련,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타운 건립, 종단 망실재산 환수, 간화선 대중화 연구 등의 사업

중앙승가대 동문·재학생 “봉은사를 지원사찰로”

봉은사 보우당서 28명 9일부터 ‘단식’ ... 주지에 명진스님 임명

중앙승가대 총동문회(회장 정남)·대학원 원우회(회장 각명)·총학생회(회장 법공)가 서울 봉은사를 재정지원사찰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11월 9일부터 봉은사 보우당에서 무기한 집 단기도정진에 들어갔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각명·법공, 이하 비대위)를 구성한 뒤 9일부터 단식을 시작했다. 단식에는 정남·각명·법공 스님 등 28명이 동참했다.

비대위는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중앙승가대 운영예산 가운데 60%를 종단에서 지원해 왔다. 사찰재정 악화로 분담금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며 “중앙승가대 예산을 전적으로 종단이 담당해 학교를 발전시켜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교육기관으로서의 학술 및 교육 목적사업 예산배정이 어려우며, 매월 종단전입금 수입에 따라 사업시행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승가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며 봉은사를 중앙승가대 재정지원사찰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스승교육 투자 △중앙승가대 발전 위한 재정 확보 △신입주지 임명 철회 △공개 토론 등을 종단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은 8일 “1996년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정남(앞줄 가운데), 대학원 원우회장 각명(앞줄 왼쪽), 총학생회장 법공(앞줄 오른쪽) 스님 등이 서울 봉은사를 중앙승가대 재정지원사찰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9일 봉은사 선불당에서 단식에 들어가고 있다.

중앙승가대 개원 이래 경성비단 124억 4000만원, 김포학사 이전 비용 350억원 등 종단 내 다른 기본교육 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고 전제한 뒤 재정지원사찰 요구는 “종단 회계단일화 원칙과 종단 기본교육기관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히 기본 교육 과정 중인 예비승가까지 동원하는 비교육적 자기모순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봉은사 신도회인 청정공덕회 또한 6일 “중앙승가대 육성과 발전에 대한 논의의 주체는 봉은사가 아니라 총무원이며 그 대안을 담보하는 곳은 종단 전체”라며 지정사찰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청정

공덕회는 또 “물리적 행동을 통한 해결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은 9일 기자회견에서 “학교 발전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봉은사 문제만 부각돼 안타깝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총무원, 중앙승가대 학인 및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의를 모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8일 봉은사 새 주지에 명진 스님(민족공체추진본부장)이 임명됐다.

김두식·남동우 기자

전국승가대 교직자 29일 동학사서 연수

조계종 교육원은 제6회 전국승가대학(강원) 교직자 연수를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공주 동학사에서 실시한다. 연수는 전국 강원 교직자 총회를 비롯해 ‘교직자의 사명과 자제’ ‘사

회 변화의 흐름과 불교의 역할’ 주제 특강, 치문·선요·도서·교재에 관한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연수 대상은 전국승가대학(강원) 강주·강사·중강스님 총 81명이다. 전국승가대학 교직자 연수는 교직자로서 사명감을 고취하고 상호 교류 및 승가교육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남동우 기자

선관위원장 징계 청원서 제출

실천불교승가회 중앙총회에

제14대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징계와 위원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중앙총회에 제출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성관·효림)는 11월 9일 중앙총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가섭 스님을 청원인으로 한 청원서를 접수했다.

실천불교승가회는 청원서에서 △제14대 중앙총회의원 선거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업무 진행으로 종단의 위계와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점 △파행적인 선거업무를 진행해 혼란을 부추긴 점 △동일 사유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청원이유로 제시했다. 또 중앙선거위원회 동공 스님에 대해 “중앙선거위 업무를 공정하게 이끌어야 할 책무를 지닌 위원장은 중선위 질서를 문란케 한 당사자로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봉영 기자

제주 관음사 29일 산중총회

조계종 제23교구 제주 관음사주지 직무대행 응주 스님)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11월 29일 오후 2시 관음사 포교원 보현사에서 열린다.

승랍 25년, 법계 3급 이상의 비구 스님이어야 입후보를 할 수 있으며 후보 등록 기간은 11월 19일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다. 김두식 기자

호법부장 서리 심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1월 9일 심우 스님(사진)을 호법부장 서리로 임명했다. 심우 스님은 1986년 법사에서 자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와 89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해인사 말사 거창 포교당 주지 소임을 보고 있다. 김두식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602호 2면 ‘누가될까’ 기사에서 혜홍 스님은 지관 스님의 상좌가 아니라 조카 상좌로 바로 잡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형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공 고

大韓佛敎 佛入宗 前 總務院長 金鏡岩은 宗正 중심제(宗憲 제41조: 住持는…… 宗正이 임명한다)의 宗憲도 아랑곳없이 그동안 적지 않은 인사문제에 宗正[本人]과의 사전 상의는 말할 것도 없고, 때로는 追認마저 생략한 裁人權을 남용하는 등 월권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宗憲上 人事權이 있는 本人[宗正]이 엄연히 현존하는 상황에도 이렇할진대 宗正 有故時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19일 創宗主 太虛·泓宣 大法師의 열반추모법회 때 本人의 제자인 도명 스님에게 宗正 有故 後의 종단안정 책무를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宗正 有故 後라는 분명한 단서를 붙여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스님들의 반대가 있었고, 또 사흘 후 스님 몇 분이 大韓佛敎 佛入宗 總本山인 華光寺로 來寺하여 위촉장 취소를 권유하여 本人[宗正]은 흔쾌히 승낙하고 곧 위촉장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탐·진·치 三毒心中에서 우러나온 욕기 어린 野慾을 지니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처럼 前 總務院長 金鏡岩은 本人의 有故 後라는 분명한 단서를 붙여 수여한 위촉장을 직접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수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작성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하여, 宗正의 동의를 얻어 종회의장이 소집하기로 되어있는 비상총회를 종회의장이나 現 宗正인 본인에게 한 마디 상의 절차도 없이 不法적으로 소집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현존하는 宗正을 有故로 선언하면서 宗正職務代行을 자칭하며, 세 중정을 추대하고, 또 總本山을 자신이 장건하여 住持로 거주하는 松華寺로 지정하게 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害宗行爲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本人[宗正]은 大韓佛敎 佛入宗을 통합하고 대표하는 宗正의 체면도 있고 하여 金鏡岩이 자신의 잘못된 野慾을 참회하며 원상회복을 도모하기를 그동안 무척 기다려왔으나 상황은 그 반대로 진행되었습니다. 金

鏡岩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敎界 언론 등에 宗正 有故라는 공고를 내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계속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더 이상 간과해서는 宗團의 존립기반마저 위태롭게 될 상황이므로 賞罰法 제6조 3항[宗正 또는 중진 敎職者에 대하여 不敬 및 모욕적 언동이나 행위를 감행한 자]와 4항[徒黨을 만들어 宗團 和合을 파괴한 자] 그리고 6항[宗憲 및 宗法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행위가 있는 자]에 따라 大韓佛敎 佛入宗을 통괄하고 대표하며 [宗憲 제9조] 總務院長 任命權 [종헌 제14조]을 지닌 宗正의 권한으로 이번에 害宗行爲者 金鏡岩을 褫奪 廢牒과 아울러 그가 住持로 거주하는 松華寺도 大韓佛敎 佛入宗에서 제적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害宗行爲者가 자기 野慾을 채우기 위해 더 이상 종단의 존립기반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宗憲 제12조[宗正은 宗旨 및 宗風에 違背되는 宗會의 決議를 護法院의 再審을 거쳐 거부할 수 있으며, 不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宗會의 解散을 명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中央宗會를 해산하고 동시에 本 宗團行政에 직위를 부여받은 종도들의 직위도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종단의 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단이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宗正인 本人은 사부대중의 증지를 모아 大韓佛敎 佛入宗 總務院을 새로 지정하고 總務院長도 물색하여 宗憲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하겠습니다.

그동안 害宗行爲者 金鏡岩의 野慾과 煽動에 휘말려 본의 아니게 害宗行爲를 한 분들도 더 이상 害宗行爲에 가담하지 않으면 “교단의 화합을 생명으로 삼으라.”는 가르침대로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제부터는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 종단이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佛紀 2550년 11월 8일
大韓佛敎 佛入宗 宗正 禹鏡照